

1. 단복의 의의

1999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의 출범과 함께 포교사단은 단복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포교사를 상징하는 단복의 모습이 되었다. 포교사의 각종 종교 활동을 함께 하는 포교사 단복은 패션이나 유행에 따라 변화하기보다 종교성을 상징하는 의례복으로 조직성과 통일성이 착용자의 의식에 반영되어 그에 따른 역할과 임무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2. 단복의 목적

포교사의 단복은 불교 포교에 대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포교사들의 소속감과 긍지를 드높이고 포교사의 위상을 바르게 세우는 수단이다. 또한 단복은 불교문화를 시각적 언어로써 알릴 수 있어 중요한 포교의 도구가 된다.

3. 단복의 요건

가. 상징성: 단복을 입은 사람이 대한불교 조계종단 소속의 포교사임을 알 수 있도록 함

- 조계종의 상징인 삼보륜과 '옴' 문자를 원단에 삽입하여 제작.
- 밝은 적갈색의 우리 옷으로 가슴에 포교사단 마크를 넣어 제작

나. 기능성: 포교사의 각종 포교 활동에 편안하도록 함

1) 저고리

- 상의는 스님들의 동방과 같은 의미로 뒷 중심에 맞주름을 넣어 절을 할 때 편안함과 유연성을 갖춘.
- 의례복의 품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절을 할 때 엉덩이가 보이지 않

는 길이로 제작 하였음

2) 사폭바지

하의는 사폭바지(4조각으로 재단)로 풍성함과 착용의 편의를 고려하여 허리와 발목은 끈 대신 고무줄과 단추로 대체하였음.

다. 심미성: 전통과 품위를 잃지 않는 아름다운 디자인

전래의 우리 옷 디자인으로써 포교사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고 변화와 창조, 안정을 의미하는 갈색은 은은한 색상과 실크 느낌의 소재로 착용자에게 우아한 인상을 부여함

라. 경제성

- 가격의 합리성과 내구성, 관리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
- 포교사단복은 '도비' 조직으로 제작되어 울풀림 등의 현상이 적어 오래 입을 수 있음

4. 포교사단복의 구성

- 기본(춘추복포함) : 바지, 저고리, 조끼, 속저고리, 스카프(총 5개)
- 선택: 마(麻)하복으로 (속저고리, 바지, 조끼), 배낭, 크로스백 등)

5. 관리방법

- 드라이크리닝 및 물세탁이 가능함.

6.단복 입는 순서

- . 정복- 바지, 저고리, 스카프.

. 춘추복-정복바지, 속저고리, 조끼.

. 하복- 정복바지, 속저고리.

7. 포교사가 단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

-포교사단 공식 행사

①팀 포교 활동시, ②포교사의 날, ③연등회, ④분야별연수, ⑤8재계

⑥그 밖의 종단이나 포교사단 및 지역단의 공식 행사

8. 단복을 입으면 안 되는 경우

포교사 단복은 포교사단 전체의 위상을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단복을 입고 행동이 바르지 않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착용해서는 안 된다.

① 개인 봉사 활동 시(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활동)

② 시위하는 곳에 단복을 착용하고 참가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